



2026년 설 명절 가정예배

예 식 사 인 도 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설 명절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사 도 신 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9장(통일305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 표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주의 은혜로 설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큰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을 돌아보고 새 희망을 향해 나아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욱 복되고 평안하며, 화목하길 원합니다. 2026년에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제목들이 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실패의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127:1, 잠언3:5-6절 인 도 자

시편127:1절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3:5-6절 :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 씬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가정 설 교 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인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설날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 한 살 더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를 품습니다. 건강하기를, 가정이 평안하기를,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생과 가정의 참된 복은 사람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시편 127편과 잠언 3장의 말씀을 따라,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편127: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애쓰며 가정을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땀과 수고가 가정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가족의 울타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 집, 내 자녀, 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가족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정은 쉽게 무거워지고, 사랑 대신 요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빠진 가정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중심을 잃게 됩니다. 새해의 첫날,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은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관계가 어려워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집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새해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언3장 5-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 가정의 경제, 건강과 노후까지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지, 내가 해 왔던 방식이 맞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다는 신뢰입니다.** 우리 가정이 새해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를 앞세우게 하소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때로 더디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의 첫 걸음을 신뢰의 기도로 내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감사로 새해의 문을 여십시오.

설날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기쁨만 있었던 해는 아니었습니다. 염려도 있었고, 눈물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이 자리를 잃고, 원망 대신 이해가 자랍니다. 작은 일에도 미소가 생기고, 가족을 보는 눈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늘 감사가 흘러나올 때, 자녀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어집니다. 새해의 첫 말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문을 여는 가정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감사는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이며, 미래를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공 동 기 도 공동기도는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다 같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걸음을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작은 기도와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어 형통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걸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435장 (통일492장) 다 같 이

-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기 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를 마치고 은혜로운 말씀과 축복의 교제를 나눕니다. >

